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통행정 '눈길'

정읍시가 시민 행복시대, 정읍 번영시대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소통행정'은 매주 금요일 제2청사와 보건소 현장에서 주요 현안 사업과 시정 운영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행정을 통해 외부청사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22일 오전 농업 기술센터에서 유진섭 시장과 각 부서 과장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업무보고회를 갖고 현장에서 결재를 처리했다.

유진섭 시장은 "더불어 잘사는 미래농업 기반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며 농업인들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오베이골 장터' 개장

고창 운곡탐사르스습지 마을 주민들의 직거래 장터인 '오베이골 토요일 장터'가 개장했다.

지난 22일 오베이골 토요일 장터를 주관하는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대표 조용호)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장을 미루다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어렵게 개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베이골 장은 매년 봄과 가을 고인돌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운곡탐사르스습지 마을 주민들이 재배하고 생산한 각종 먹거리와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원래 고인돌공원 내 다리목에서 진행되던 장이 올해부터 고인돌 박물관 앞 매점터로 자리를 옮겨 모로모로 열차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습지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간판을 걸고 농산물과 장류(된장, 고창장, 간장), 공예품(대바구니, 도자기 등) 등을 팔고 썬떡, 커피와 같은 간식거리도 맛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영 자연경관지구 조성

부안군, 부안읍성 흔적 복원 동중리 일원 약 3만㎡ 규모 학술적 가치 높아 역사문화관광도시 부안 실현 발판 기대

부안군이 부안읍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고 부안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안읍 동중리 일원을 대상으로 구영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부안읍 동중리 21·7번지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성곽·부안읍성 테마 전시관·대동마당·성곽체험장 등 기념시설과 구영 당산나무쉼터·어린이 전통놀이 체험장 등 주민지원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기반시설, 하늘화원·노을정원 등 녹지시설 등을 갖춘 구영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거쳐 조성 및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구영 자연경관지구는 지난 1974년 건설부고시로 최초 결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인접한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개설 및 건축물 건축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돼 군에서 경관지구를 조성해 부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안읍 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은 부안읍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학술적 가치와 부안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부안읍성의 경우 조선시대 부안현의 중심지로 성환산을 배산으로 관아와

객사 민가 등을 둘러싸은 나성 형태의 평산성으로 축조됐으나 일제강점기 철거돼 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기록에 의하면 성문은 동문(청원루), 남문(취원루), 서문(개풍루)이 건립돼 있었으며 성곽의 둘레는 약 4987m, 높이 4.5m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동문만 당산, 남문만 당산 서문만 당산을 통해 그 자취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군은 구영 자연경관지구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실존적 가치를 부여하고 부안읍성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안군 방문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에 따른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역사문화관광도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구영 자연경관지구에 대해 우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 식물조사 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성규모 및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부안읍성 역사성 조명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군민 자긍심 고취, 부안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자원화 등 역사문화관광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동중리 일원을 대상으로 구영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과학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우수'

7년 연속 보육역량 강화지원사업 '선정' ... 창업 활성화 올인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북지역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운영지원사업 및 7년 연속 보육역량 강화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보육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00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에 따른 달성도

와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기관의 전문성 운영 인프라, 사업계획의 효과성, 유관기관 연계성, 운영실적 관리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황인창 총장은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노인·장애인시설 현장 방문 위로

유진섭 정읍시장이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나섰다.

이틀간의 시설 현장 방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을 동행했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과 22일 18개의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시설의 방역체계 상황을 확인 접

감하고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 시장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지역 최대 명품 배 산지인 고창군 과수 농가들이 사상 최악의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기상 고창군수가 피해 대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창 과수 농가들 배 냉해 피해 '심각'

유기상 군수 현장찾아 농민위로

전북지역 최대 명품 배 산지인 고창군 과수 농가들이 사상 최악의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수 유기상 군수가 현장에 나섰다.

지난 22일 고창군과 배 재배농가에 따르면 주산지인 고수면, 성송면 등 고창 전역에서 배 착과(着果) 불량 발생했다.

오는 25일까지 농가로부터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면 최종 집계 나오지만, 벌써부터 최근 10년새 열매 자체가 없는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수 있다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초 영하의 추위에 서리까지 과수원을 강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배 착과와 봉지씌우기 작업으로 분주해야 할 고수면의 한 과수원은

열매를 찾아보기 힘들고 일단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농가는 "봉지를 씌울 열매가 아예 없어 사실상 포기한 농가도 수두룩하다"며 "90% 이상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현장을 찾은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가의 절망적인 하소연에 위로를 건네며 관련 부서에 피해 대책과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 군수는 "저온 피해로 시름이 깊어 농가를 위한 복구비 지원과 과수원 현장기술지도 등 농가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형열 소장은 "저온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순 숙기, 비료 살포, 배수로 정비 등 사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농촌 마을 활력 되찾는다

전북과학대와 재능나눔 본격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재능나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대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촌 지역 균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농촌에 필요한 주민건강 보건과 복지증진, 마을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20일 전북과학대학교와 2020년 농촌재능나눔사업 솔루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류태영 공동체과장과 두하영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11개

학과 지도교수들이 참석해 주민복지와 공동체 활성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시행이 늦어진 만큼 이달 말부터 문패 제작과 환경정화 활동 등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사활동에는 전북과학대 11개 학과 학생들과 교수 등 350여 명이 참여하며 5월부터 11월까지 복면 원단마을 등 8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이·미용 봉사 △민생질향 조기 예방 △마을환경 정화 △웃음치료와 행복사신 △경로당 영양산단 개발 △시력 검사와 근용안경 증정 △주거환경 개선 △문패제작

△마을주민 마사지 △건강·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